

강진 ‘들녘경영체 국비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15억6천만원 확보...총 3개 분야 2개소 선정 벼 가공시설·조사료 유통시설·농기계 등 일괄 지원

강진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들녘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 현지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총 3개 분야에 2개소가 선정됐다.
착한영농조합법인인 참여농가 139호, 경영면적 262ha의 규모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사업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다각화

까지 3개 분야에 모두 선정됐으며, 조사료 유통시설 및 생산 장비 구축, 올벼쌀 가공 시설 건립 등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질량영농조합법인인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분야에 선정돼 공동육묘장 설치 및 광역방제기 구입을 통해 들녘의 공동 영농작업의 효율화에 기여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정된 들녘경영체는 논 타작물 대규모 재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해,

쌀 생산중심에서 타작물 및 이모작 생산·유통 기반을 다원화해 쌀 적정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앞으로의 농업은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해 일반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들녘경영체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부가치 창출로 강진군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윤규진 기자 jin2001@



최근 목포대학교 이석인 교수를 초빙해 공공빅데이터를 취급·활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스마트하게!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목포, 4차산업시대 대비 역량 강화 나서

전문가 초청...공공부분 빅데이터 활용 등 적극 지원

목포시는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생활양식과 사회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제조업, 유통업 등에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시는 산업의 지배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민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양상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자세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공공부분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목포대학교 이석인 교수를 초빙해 공공빅데이터를 취급·활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스마트하게!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이노베이션솔루션(주) 김낙경 대표이사를 초빙해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를 주제로 교육했다.
시는 목포 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역별 빅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지역ICT 전문가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빅데이터가 중소기업에서 융합 스마트 공장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도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ICT 기업, 공무원 등 지역 민간학이 하나가 된 '목포시 지역정보화 솔루션 그룹'을 구성해 지역기업 등 민간의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도비 공모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완도, 공공비축미곡수매 시작 매입 품종 작년보다 95 t 증가

완도군은 8일 노화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서 오는 23일까지 공공비축미곡매입 물량 건조벼 3만5천300포를 수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완도군 공공비축미곡배정 물량은 3만5천300포/조곡40kg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천375포대(95 t)가 증가했다.
특히 톨백 포대 수매는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의 40kg 단위 소형 포대에서 800kg단위 t백(대형)포대로 수매하며 기계화가 가능해 농가에서는 인력을 크게 절감하고 입·출고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톨백 수매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매입 품종은 새일미로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된다.
매입 대금은 우선 지급금은 지급치 않고, 중간 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수매 후 지급 할 계획이며 최종 정산은 쌀값 최종 확정 이후 연말까지 지급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비축미 수매 시 매입 대상 품종과 혼합 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 검정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품종 검정 제도는 벼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매입 대상 농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시료(600g)를 채취하고 민간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반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도군에서는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질이 다소 떨어진 벼도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제15회 영암읍민의 날 및 경로잔치'가 8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영암읍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5회 영암읍민의 날·경로잔치' 성료

곽정완 前 재경영암읍향우회장 읍민의 상 '영예'

영암군은 '제15회 영암읍민의 날 및 경로잔치'가 8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영암읍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전동평 군수, 박영배 군 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문용현 재경영암읍향우회장 및 향우, 읍민이 함께했다.
이번 읍민의 날 및 경로잔치에서 읍민의 상을 수상한 곽정완 전 영암읍 재

경향우회장은 향우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 향우회 화합과 결속을 강화했으며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기탁 등 남다른 고행사랑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장한아버이상에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실천한 이상교씨가 수상했으며 효행자상에는 지극한 효행으로 노모를 봉양하고 웃어른공경 효친사상 고취에 공헌한 한부길 씨, 공로상에는 영암읍

문예·체육 분야 발전에 공헌한 임삼문 씨, 감사장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김영수씨가 수상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김의준 고구마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영암군민장학회에 500만원을 기탁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임용기 영암읍장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영암읍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영암읍민의 날 및 경로 위안자치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읍민과 내·외귀빈 등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철 기자 hskim@

진도군,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줄이어

공모사업 10종 선정...150억원 국비·도비 확보

진도군은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10종의 공모사업에 뺨해 150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해양수산부의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에 선정돼 10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 오류 7리 마을특화개발사업 20억원, 공공스포츠클럽 6억6천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6억원과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비 4억8천만원도 따냈다.
군은 2017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여미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2억원, 순화역 과식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전복 육상양

식시설 사업 50억원 등 6건 선정된바 있다.
2019년 공모사업의 경우 11월 현재까지 전북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사업 등 2건을 확정했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공무원과 주민이 뚝뚝 뚝뚝 노력한 결과 민선 7기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군 도약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긍정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진도=한길준 기자 gjhan@

기사제보 2580@jndomin.kr

2018 화순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국화향연

10.26(금) - 11.11(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17일간